

# 대전지방법원 2016. 4. 6. 선고 2015고단41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 란),협박

##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

사건	2015고단4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, 협박
피고인	A
검사	송선민(기소), 김지수, 이현석(공판)
변호인	변호사 B(국선)
판결선고	2016. 4. 6.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  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 
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죄사실

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 중학생인 피해자 C(여, 13세)의 사진을 보고 메신저 대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또래로 속인 채 연락처를 알게 된 후,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.

#### 1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2015. 9.9. 23:56경 대전 유성구 D, 409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,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"너 좋아한다고 했잖아, 오빠가 너 좋아해, 팬티 뭐 입었어? 색깔?"라고 말하고,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:57경 다시 전화하여 "오빠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, 잠옷 입고 있어?"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#### 2. 협박

피고인은 위 일시,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3:56경 "전화 끊지 마, 너 끊으면 집도 아니잖, 너 죽을 줄 알아, 어?"라고 말하고,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:57경 다시 전화하여 "너 자꾸 끊으면 혼날 줄 알아, 끊지마, 어?, 또 까분다"라고 말하고,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음 날 00:00경 "이 씨발년아, 내 전화 늦게 받지 말랬잖아, 빨리 받으랬지"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.

#### 증거의 요지

#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# 1. 속기록(피해자)

1. 수사보고(통화기록, 녹취내용 및 파일 CD 첨부에 대한 건), 통화기록 캡처사진

#### 법령의 적용

#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, 징역형 선택), 형법 제283조 제1항(협박의 점, 징역형 선택)

#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## 1. 수강명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

#### 양형의 이유

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,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. 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,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,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#### 신상정보 제출의무

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####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

피고인의 연령, 직업, 재범위험성, 이 사건 범행의 종류, 동기, 범행과정, 결과 및 죄의 경중,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,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

## 판사 이재원